



정부는 국내 요소수급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대응 중

<보도 주요내용>

- ☐ 12.6.(수) 매일경제, 서울경제 가판은 요소수급 관련 기사에서
 - “중국어 요소 수입엔 정부가 보조금 준다”, “중국산과의 물류비 차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” 이라 보도하였습니다.
- ☐ 또한 12.6.(수) 한국경제, 서울경제 가판은 관련기사에서 “브리핑도 제각각...요소 대책 ‘우왕좌왕’하는 기재부·산업부”, “수입선 다변화 지원 놓고 부처간 엇박자 촌극” 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>

- ☐ 정부는 기업이 대체 수입처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에 대해 정부지원 요청 및 건의가 있었으며,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며 정부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.
- ☐ 또한 기재부와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국내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종주 (044-203-4910)
		담당자	사무관	황채은 (044-203-4913)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	책임자	과 장	이진민 (044-215-7870)
		담당자	사무관	오서정 (sjoh10@korea.kr)